

홋카이도-부산광역시 제휴 10주년



지난 3월 25일 홋카이도청 국제과에서 부산광역시청 국제협력과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홋카이도와 부산광역시의 제휴 10주년을 기념해 이를 계기로 교류를 발전시키고자 사무협의를 했습니다. 5월 20일에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에 맞춰서 부산시청 방문단이 방문하기로 했으며 홋카이도도 가능하면 올해 부산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서로 다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모션을 각각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며, 앞으로 상호방문을 더욱 늘려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왕래를 위해서는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3월 26일은 부산대학교 대외교류본부에 방문했습니다. 홋카이도교육대학과 부산대학이 협정을 맺고 있어 교수와 학생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양 대학의 교류를 중심으로 홋카이도와 부산의 교류를 견고히 다져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부산대학 측은 홋카이도 방문단이 부산을 방문하면 부산대학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영화와 예술 분야를 공부하는 홋카이도 학생들과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배우고 싶은 부산 학생 등 많은 젊은이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환담을 마쳤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공연 「한국 천 년의 음식」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의 주최로 5월 20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한국 천 년의 음식」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 전날은 김철호 지휘자를 비롯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문화회관, 대한민국 외교부, 주삿포로총영사관과 홋카이도청 지사실장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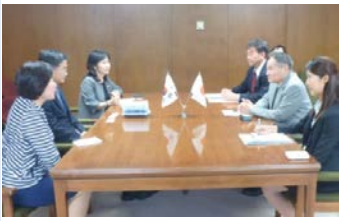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84년 5월 창립되어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호주, 중동·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개최해 국내외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었는데 1부에서는 수제천, 춘앵전, 시나위, 장구춤 선보였고, 2부에서는 남도아리랑,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신모듬], 일본곡(모노노케히메OST, 날개를 주세요)과 한국민요(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를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멋진 공연으로 천 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공연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한편 공연장인 삿포로 시민홀에서는 부산소개전을 개최해 사진을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부산 팜플렛을 배부했습니다.





5월 20일 부산광역시청 방문단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 일정에 맞춰 홋카이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우호교류를 위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 매우 뜻깊은 일이며, 다음달부터 부산과 홋카이도의 직항편 계절운항이 재개 되는 것을 계기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홋카이도와 부산의 교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국악 워크숍&부산 소개 세미나

5월 21일 부산국악관현악단의 워크숍&부산 소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5월 20일의 공연은 많은 관객과 함께한 공연이었지만 워크숍은 90여명이 참가해 한국의 민요와 장단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소중주[수룡음], 가야금 산조, 살풀이 춤,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통 악기의 깊이있는 소리와 무용, 신명나는 사물놀이 등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공연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 2부에서는 밀양아리랑과 널리리아를 불렀습니다. 일본어 가사와 악보가 →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등 한국의 장단을 함께 손뼉을 치며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 3부는 부산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의 역사와 아름다운 관광지, 문화예술 시설 등 부산의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 부산시 이근주 문화예술과장의 게스트 인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추첨회에서는 추첨을 통해 부산 오리지널 굿즈를 관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2015지구촌나눔한마당에 홋카이도 공연단「민족가무단 고부시좌(民族歌舞團こぶし座)」가 참가했습니다.

지구촌나눔한마당은 1996년 시작되어 매년5월 열리는 행사로 세계 각국이 참가하는 다문화국제우호이벤트입니다.

홋카이도는 서울특별시와2010년 우호 제휴를 맺어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합니다.

2010년서울시의 초대로 아이누 민족박물관(시라오이)이 처음으로 지구촌나눔한마당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하코다테를 거점으로 하는 고부시좌의 서울 공연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 광장 등에서 소란부시와 예사시마쓰리바야시 등 홋카이도의 특색 있는 공연을 펼쳐 많은 서울 시민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에 새로운 총영사가 취임했습니다. 한혜진 총영사는 기자 출신으로 총영사 전에는 외교부 부대변인을 역임, 박근혜 정부 첫 여성 공관장입니다. 5월 11일 홋카이도청에서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지사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협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교류를 활발히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